



## 14기 1년 차 정기대의원대회 마쳐

### 3,500 조합원 시대로 중앙·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확대 조직 내외적 강화, 2026년 초석 다질 것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2026년 사업 방향을 확정해 조직의 내외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 강화위원회를 준비해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오후 2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14기 1년 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본대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 기념식에서 조성민 지부장은 대회를 통해 “올해 조직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해로 나가자”며 “2025년 간부파견을 쟁취했던 그 기세로 올해는 조직을 튼튼하게 세우는 노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했다. 대회사에 이어 금속노조 이태현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 축사도 있었다. 축사 다음으로 모범조합원상과 모범조직상 시상도 있었다. 모범조합원은 이원정공 엄대근 조합원(前 동부산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모범조직상은 동부산지회 동보체인분회가 수상했다. 동보체인 분회는 각종 투쟁과 조직 확대, 엄대근 조합원은 지회 공동교섭 투쟁 등 성과가 이유였다.

기념식을 마치고 잠시간 휴식 뒤 본대

회가 열렸다. 본대회 첫 순서는 감사위원 선출이었다. 감사위원에는 최철진(SNT모티브), 박희찬(HJ중공업), 김창수(이원정공) 조합원이 출마해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됐다. 당선된 감사위원들은 지부(지회·분회) 회계와 업무 감사를 통해 조직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위원 선출에 이어 지부 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심의했다. 규칙 개정은 향후 선거 관리를 전 조직이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규칙 개정 후 진행된 안전은 민주노총 대의원·조합 중앙위원 선출건을 심의했다. 이 안전은 시기상 추진 성격 안전이었다. 이어 13기 2년 차 사업평가와 결산 보고 승인 건이 논의됐다. 안전에 대해 의견이 있지는 않았지만, 감사 결과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관련, 결과보고서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별첨 자료를 별도 출력 확인했

다. 향후, 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감수를 약속했다.

평가와 결산에 이어 14기 1년 차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14기 1년 차 사업계획은 슬로건으로 분명히 표현됐다.

“3,500 조합원 시대와 중앙·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확대”

14기 1년 차 사업목표와 방향은 슬로건으로도 분명하게 전달됐다. 조직 내적 강화와 외적 강화다. 이를 토대를 지부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 안전 관련 조성민 지부장은 “14기 1년 차 구호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중앙·집단교섭 참여 요구가 아니다 “며 ” 이번 요구는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숙제로 그 위상을 높인 것이다 “고 강하게 강조했다. 14기 1년 차 사업계획도 원안으로 통과되며 예산안도 가결됐다. 집단교섭 요구안 승인 건 논의는 우려와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언어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 결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문을 통해 교섭 투쟁의 결의와 산별의식 강화를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 가족과 함께하는 봄나드리 트레킹

2026년 4월 11일 (토) 10:30

태종대 입구(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29-1)

식사 장소 : 태종사 맞은편 운동장

참가 기념품 : 양우산 / OX퀴즈 경품 추첨

태종대 위치도

